

민간 SI업체의 군 정보화 경험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

☞ LG CNS 이상주

1. 국방 정보화 현주소

우리의 국방정보화는 병력통계 등 단순 반복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던 초기 도입기('70~'85)를 시작으로 각군 별 인사 및 군수분야의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군별, 기능별 추진기'('86~'94), 국방부 차원에서 기능별 체계통합을 추진한 '정보화 통합기반 마련기'('95~'00) 등을 거쳐 현재의 '정보화 통합 확충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방정보화는 최근의 전장환경 변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급속한 정보과학 기술의 발전은 군사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어 종전의 화력과 기동 중심의 전쟁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의 첨단 과학전으로 진화시켰고 지, 해, 공에 국한되었던 전장영역이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국방분야에서 정보화의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렇듯 국방정보화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현 시점에서 국방정보화의 사업추진과 이를 지원하는 민간 SI업체의 국방사업 현주소를 돌아보고 국방정보화가 나가야 할 방향과 민간 SI업체의 군 정보화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 동안 국방정보화 사업은 중, 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외부적 요인 즉, 국가나 국방정책의 변경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추진이 지연, 수정, 취소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왔고, 그나마 완성된 체계조차도 사용자의 호응이 떨어져 체계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등 국방정보화가 계획만큼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나 계획사업의 발주 지연 또는 사업 취소, 과도한 사업범위 및 최저가 입찰방식, 일방적 투자요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됨에 따라 국방정보화 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해오던 대형 SI 업체들은 국방사업에 대한 매력

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동참해야 할 우수한 대형 민간 SI업체들의 이러한 국방사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국방정보화의 목표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이며 더 나아가서 전투력 증강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동참하는 민간 SI업체의 입장에서 국방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이나 외국 군의 정보화 운영방안 분석을 통하여 국방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생각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정보화 추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국방 정보화의 중요성

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 정보체계 및 무기체계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오늘날의 전쟁을 한마디로 완전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나 학자들은 이를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디지털전쟁(Digital War),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지난 2003년의 이라크전입니다. 특히 이라크전은 정보화 능력과 지휘통제체계 보유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현대전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보여준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라크전에서 '충격과 공포(shock & awe)' 작전으로 시작한 미국 군은 감시위성, 통신위성, 조기경보/요격위성, 항법위성, 기상위성 등 다양한 항공우주전력을 동원하여 전 전장을 가시화 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반 전투요소들을 디지털화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결합시켜 전장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국 본토와 현지 사령부 그리고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신장된 전력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합군의 공중공격에 의해 통신망과 지휘통제체계가 붕괴된 이라크군 지휘부는 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작전지시를 내릴 수도 없는 눈이 먼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한 반면에, 미국 군은 정보수집(ISR), 지휘통제(C4I) 및 정밀타격체계를 네트워크 화하고 정보융합, 전장상황 인식의 공유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자동화한 첨단 지휘통제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이라크 군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병력을 투입하고도 짧은 기간 내에 이라크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장차전에서 정보화의 수준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군 정보화를 소홀히 한 국가는 이라크 전쟁에서 말해주듯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을 받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 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 2003년 말 발간한 '동북아 전략균형'은 남한의 군사력이 질적으로는 북한보다 우월하지만 양적으로는 열세여서 전체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한국을 앞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군사력에서 열세인 현 상황 하에서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 중이고 주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북핵 문제 등 어두운 안보 상황하에 정보화, 과학화를 통한 전력 증강이 더욱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군도 '정보, 지식 중심의 정예 정보화 군 육성'을 국방정보화 목표로 2010년까지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할 통합전장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방 정보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전의 통합수행 능력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수개 년이 우리 국방정보화 목표체계 구축과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므로, 국방정보화가 곧 자주국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국방정보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국방정보화 사업의 특성

장기간 국방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 SI업체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방정보화 사업이 가진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민간 SI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는 군 주도개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3.1 국방정보화 사업의 특징

국방정보화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규모가 크고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SI업체 입장에서 국방 SI 시장이 여타 SI시장보다도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나 인력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더욱 가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방대한 국방정보화 조직체계를

둘 수 있다. 군은 조직 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정보화 사업 관련 조직을 가지고 있어 추진예정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수행 간에도 적절한 사업통제를 지원함으로써 요구하는 목표체계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특징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지연, 체계 획득에 대한 적시성의 저하, 과도한 사업통제로 인한 사업개발기관의 주관 상실, 사업 실패 시 책임소재의 모호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정보화 사업들은 신기술의 경연장이자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내외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한 신규 시장으로의 선도 진입 및 시장 지배력 확보 측면에서 민간 업체에 가져다주는 이익도 많은 반면, 사소한 오류도 인정되지 않는 군 정보화 사업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신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야 하는 민간 SI업체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인적, 시간적 노력의 투입과 목표체계에 대한 낮은 구현 성공률로 인해 감내해야 할 위험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3.2 민간 SI업체에 미치는 영향

국방정보화 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실적이 기대되고 기술인력 양성 및 효과적인 인력운영 등 국방정보화 시장이 민간 SI업체 입장에서 볼 때 분명 매력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끊임없이 요구되는 신기술의 적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통하여 기술력을 내재화 함으로써 타 분야 SI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시장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 역시 병존하고 있다.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이 예정된 사업들이 정책에 따라 지연되거나 축소, 삭제되는 사태가 불규칙적으로 발생되어 민간 SI업체에서는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업 준비인력에 대한 막대한 비용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업수행 간에는 사업범위를 초과하거나 체계구축 이후 운영 효율화를 고려하지 않은 추가, 변경 요구사항으로 사업 지연과 투입 자원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장기사업에 있어서 History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관리단 인력의 잦은 교체는 업체와의 분규 발생 시 원인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 전반에 대한 불명확한 책임 소재는 납기지연을 불러와 업체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도입체계에서는 신기술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때 민간 SI업체 입장에서는 국내 기술인력 부재로 인한 사업 리스크가 상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외국업체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유지보수 시 비용적으로 부담되고 적시 적절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3.3 군 주도개발 방식의 정보화 사업추진

최근 들어 일부 사업들이 군 주도로 개발 추진되는데 대해 민간 SI업체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물론, 군 주도 개발방식에 의해서 군 내의 우수한 인력들을 심분 발휘하여 군 자체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만 있다면 국방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국방정보화 사업을 군 자체 인력 주도로 수행해 나가기에는 기술 수준이나 인적자원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으며, 부족한 부분만 민간 SI업체를 통하여 확보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간 SI업체는 SI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인력공급 사업에 우수한 인력이나 기술의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행정업무들까지도 ITO 개념에 의거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군 전투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미군에 비추어 볼 때 군 주도 개발방식의 선택은 전투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국방 인력을 관리분야에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4. 정보화 체계운영 벤치마킹

국방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거나 개발된 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나 외국 군의 정보화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4.1 미국 군의 PMC(Private Military Company, 민간군사기업)

미군은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아웃소싱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군 운영과 전투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PMC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PMC란 군의 일상업무는 물론, 군사훈련 지원이나 작전개념 컨설팅, 작전능력 지도, 무기조달 중계 등의 브로커 업무, 더 나아가 전쟁에서 첩보 수집이나 전투수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군을 대행하는

용병집단의 법인 기업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PMC는 종합적인 전쟁, 군사 서비스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군사력 제공 기능이다.

과거 전투경험이나 통솔력을 가진 요원들이 군 전방에 걸쳐서 분산 배치되어 전투공간에서 실전에 참여하거나 야전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실시하여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추구하는데 상대적으로 군사력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군사 자문 기능이다.

군사력 운용에 대한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고급 장교출신들의 집단으로 군의 기능발휘나 경제적 군 운용을 위한 인력, 조직 상의 문제를 도출하고 분석 및 대안을 제공하는 자문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느 기업은 12,000명 이상의 장교출신들로 구성되어 군을 자문하고 있다.

셋째, 군사업무 지원 기능이다.

사업영역을 보면 전투작전에 필수적인 공병의 지뢰 제거나 후방 군수지원 외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과 같은 정보화 서비스 업무도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실례로는 아이티, 보스니아 지역의 미군 전력증강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코소보 주둔 미군의 전력 서비스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있었다.

PMC 기능 및 사업활동 실적을 분석해 볼 때 IT 아웃소싱 역시 PMC 개념의 일부로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군은 전력지원 서비스를 뛰어 넘어 전투력까지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4.2 국내 IT 아웃소싱(ITO)

국내 민간 기업들이 조직 경량화 및 정보화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 극대화, 체계기술의 점진적 향상 및 투자예산 절감을 위하여 ITO의 도입을 급속히 확대해가고 있다.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신규 정보화 사업은 그 한계점에 도달한 반면, 급속한 정보체계 기술의 발전은 기존 정보체계의 성능개선을 강요하거나 사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한 정보체계를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IT전문업체에 성능개선과 더불어 유지보수까지를 일임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건설분야에서 리모델링 전문업체가 각광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SI업체들은 앞다투어 ITO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에 대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신규 개발사업보다도 더 각광 받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4.3 국방 ITO 서비스 도입

국방 인력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된 정예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을 최소화시킨 전투 위주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군 인력을 비 전투 분야인 정보체계 개발에 투입할 경우, 이는 결국 상대적인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정보체계를 "In house"로 개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정보화에도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ITO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미군의 PMC와 같은 군사분야에 특화된 아웃소싱의 도입은 더욱 시급하다.

일부에서는 국방 분야에서의 ITO 도입에는 군사보안 문제가 커다란 장애요소가 된다고도 하지만, 이는 미군의 아웃소싱을 벤치마킹하고 ITO 도입에 대한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정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이며, 그렇게 될 경우 국방정보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4 전문사업자를 통한 국방정보화 발전

국방분야에 ITO가 도입되고 정착단계에 이르면 각 업무분야별로 능력 있는 업체들이 육성될 것이며, 이러한 업체들이 전문사업자로 지정되어 국방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국방정보화의 목표체계는 가장 경제적으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사업자 역시 신뢰할 만한 사업동반자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국방사업을 위해 투자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군과 민간이 모두 Win Win하게 될 것이다.

5. 국방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국방정보화 사업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외국 군의 정보화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한 결과, 국방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민간 SI업체 및 국방 연구기관의 군 정보화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군의 국방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사업 추진조직은 사업에 관한 최고의 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로 구성되어 사업 전 기간 동안 근무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규모 장기 사업이 대부분인 국방정보화 사업은 잦은 조직 변경 및 인력 이동으로 사업 전 기간에 걸친 흐름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으며, 신규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의사 결정 및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업 추진조직을 군 자체 인력으로 구성 시, 경력 관리 및 군 인사상 어려움이 있다면 국방 연구기관에 해당 사업을 과감히 위탁하거나, 이들의 참여 비중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정보화 사업이 국방 연구기관에 지속적으로 위임된다면 해당 기관들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므로 능력이 검증된 연구원들(연구원 전담 편성, 전역하는 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 영입 등)을 편성, 전담 부서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 SI업체의 군 경험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국방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 SI업체에는 군 경험 인력이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그룹은 군에서 장기 복무하였던 군사 전문가 그룹으로 오직 국방정보화 사업에서만 활용가치가 높은 집단이다. 이 그룹의 특징은 국방정보화에 대하여 현역 못지 않는 업무 지식과 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 사업 추진 시 군과 업체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에 관련된 체험적 노하우를 사용자 관점에서 IT 전문 인력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 다른 그룹은 지난 10여 년간 국방정보화 사업에 종사한 국방 IT전문가 그룹으로 이들은 IT 기술뿐만 아니라 국방 업무에서도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 그룹의 특징은 오랜 국방정보화 경험으로 현업 못지 않는 풍부한 군사지식과 전문적 IT역량을 갖추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수준 높은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빨리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대안 제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체계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근래에 국방정보화 사업이 군 주도로 개발되거나 사업 발주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서 국방사업을 준비하는 민간 SI 업체에서는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사 전문가 그룹의 일부 인원은 이미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IT전문가 인력 또한 타 공공 기관의 정보화 사업으로 재배치되어 국방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SI업체의 국방정보화 능력을 약화시켜 국방정보화 사업을 부실하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민간 SI업체의 국방사업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이 계속적으로 국방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업체의 국방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국방정보화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SI업체의 기술지원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형 정보화 사업은 몇몇 유능한 개인에 의해서 구축되지 않는다. 민간 SI업체가 국방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전문 기술지원 조직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 민간 SI업체 중 하나인 LG CNS에는 각각 임원급이 조직 책임자인 기술연구부문과 기술서비스 부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조직에서는 신기술의 도입과 적용, 이행 프로젝트의 문제점 예측 및 해결, 국내외 새로운 솔루션의 검증, 검증된 솔루션의 프로젝트 적용 지원 등 기술 및 솔루션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 높은 서비스는 사업수행 전 기간 동안 사업수행 조직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보화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국방정보화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민간 SI업체의 기술지원 조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선의, 최고 품질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3가지 방안을 통해 수년에 걸쳐 축적된 민간 SI업체 및 국방 연구기관의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이다.

6. 국방정보화에 대한 바람

지난 수년간 국방정보화 시장에서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오던 대형 민간 SI업체들이 계속되는 손실로 이제는 하나, 둘씩 국방시장에서 그 모습을 감추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다.

그 동안 국방정보화 사업의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통하여 고급화된 수많은 기술인력 또한 점점 확대되어가는 타 공공·금융기관 정보화 사업 등에 급속히 빠져 나감으로써 국방정보화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 SI업체에서는 국방 전문인력 관리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정보화 사업추진방식을 업체 주도방식에서 군 주도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부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예산 절감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SI업체의 입장에서 제한된 인력만을 공급하는 사업형태가 될 것이므로 대부분 사업 참여를 외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국방정보화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민간 SI업체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방정보화 용역사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신설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자원의 획득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정보화 사업도 다음과 같이 진일보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단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력화 운용도 적시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사업관리 및 통제를 통하여 사업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체계적이고 검증된 원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체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차원의 표준화체계 정립과 각군 체계의 통합을 통하여 산재된 자원의 공동활용 및 운영효율 극대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국방정보화 사업 획득체계는 공고한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아울러 민간 SI업체의 전문화 육성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국방정보화 사업수행 경험을 통하여 민간 SI업체 별로 각각 특화된 업무영역이나 기술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일부 사업수주에 급급한 업체들에 의해서 가격 덤핑에 의한 희생양이 되는 사례들을 계속 방지한다면 국방정보화 체계는 우수한 품질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정보체계 서비스지원 방식이나 국내의 방산물자 도입입찰에서 제한적 지명경쟁 등의 개념과 같이 국방정보화 사업 역시 업무 영역별로 능력 있는 업체들을 전문화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국방정보화 사업이 새로운 체계 건설에만 투자를 집중한 반면에, 개발된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운영유지 분야에 예산투자가 극히 미미한 결과, 양질의 많은 체계를 구축하고도 운영효과는 두드러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유지보수 강화를 위한 전담사업자 지정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전쟁에서 승패로 직결되는 국방정보화 체계 구축은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체계 기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검증된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국방 내부의 능력만으로는 그 목표체계를 달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수한 민간 SI업체를 선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고품질의 목표체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민간 SI업체는 군과 같은 입장에서 국방정보화를 고민하고 체계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참고문헌

- [1] “국방정보화의 나아갈 길”, 한국국방연구원, 2004.
- [2] “국방업무혁신을 통한 군정예화”, 한국국방연구원, 2004.
- [3]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 성과분석”,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 [4] “내가 본 이라크 전쟁” 지경사, 2005.
- [5]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생존전략”, 인사이트, 2003.

이 상 주



1982 서강대학교 수학과(학사)
2000~현재 (주)LG CNS 국방사업 담당
관심분야 : 한국군지휘소자동화체계(CPAS),
지상전술 C4I체계
E-mail : sangjoolee@lgcns.com
